

기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행정
진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도군은 오늘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의 역할 또한 단순한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형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도군은 적극행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적극행정은 공직자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문화를 말합니다. 규정의 한계를 이유로 "할 수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군민의 편의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의 출발점입니다.

진도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우수공무원 포상제도 확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생활 밀착형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2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적극행정 우수협업팀과 우수공무원 선발 2회, 실행계획 수립 1회, 적극행정 위원들의 의견 수렴 2회 등 총 5회의 진도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진도군은 영광군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소극행정의 유발 요인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폭 넓은 시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 속에서 얻은 경험은 우리 행정을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저는 부군수로서, 직원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공직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도군은 군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변화를 실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에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철학을 실천하겠습니다. 작은 불편도 외면하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통해 군민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진도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진도군은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과감히 도전하고, 따뜻한 행정으로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김선주 진도부군수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찬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입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0원

오늘이 을사년(2025) 끝자락 12월 마지막 날이다. 어느 시대를 가릴 것 없이 한 시대를 회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세대가 가장 무거웠고, 격동기였으며, 그래서 스스로 쓸쓸하고 우울한 해(年)였다고 여긴다. 역사든 인간사든 지나고 보면 누구에게나 한 편의 소설 같고, 한 시대의 장편 드라마 같다.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을사년(2025) 보내며

눈 내리는 서설을 보면서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과거 을사년이 을씨년스러웠으니, 올해도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을씨년스럽게 절망과 불안감을 던져 주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 연초부터 탄핵 스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인용, 2025년 '한반도에 통일'과 '백두산 분화'가 폭발할 것'이라는 예측이 유포되어 국민에게 민감한 감정을 주기도 했지만, 이들은 다행히도 비껴 갔다.

국내 중요 사건과 사고에 있어서 12.3 계엄 관련 재판, 탄핵, 대선 폭동, 시위 등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갈등은 격화되고 시민사회의 분열은 민주주의의 시스템과 법치행정의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화제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연초에 성묘객의 실화(失火)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져, 경북과 강원 일대의 산림 피해가 서울 면적의 80% 규모의 피해를 보았으며, 30명 사망, 45명 부상, 천년 사찰이 소실 등 역사상 최대 피해를 남겼다. 또 광주 지킴이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를 비롯한 울산, 화성, 경주, 순창 등 곳곳에서 공장 화재가 발생하여 개인은 물론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반면 광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는 다자 외교 행사로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켜 경주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인지도가 한층 높아졌고, AI 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

또 후반기 누리호 4차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우주로 날아오르는 데 성공함으로써, 민간 주도 우주개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의 우주기술은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세계 우주산업의 중요한 플레이어라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외적인 면에서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리농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하는 지지를 받아 우리 숙원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게 되었고, 한미의 자동차 수출관세 인하와 대규모 조선업 투자 협력을 골자로 한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통상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양국 경제·안보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우리 한국 청년의 취업 미끼로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로 유인해 납치·감금·고문 등 악행을 자행함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줬다. 이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캄보디아의 심각한 거버넌스 실패와 국내 경제적 불안정성 악취가 결합하여 발생한 문제로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논쟁은 국제 범죄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다.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우크라이나-러시아의 독립, 주권 전쟁, 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 이스라엘-이란 핵 우라늄 보유 분쟁, 태국-캄보디아의 국경선과 영유권, 분쟁에 기인하고 있다. 또 미국은 환경 문제, 빈부격차, 인도적 위기 등 다양한 이슈를 망각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관세전쟁으로 1년 내내 살얼음판 같은 긴장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이제 세계가 획기적인 인식과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만 남겨질 2025년을 되돌아보면서 새해 소망을 그려본다. 첫째,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자! 누구든지 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멀

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평화롭다. 주변의 이익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투쟁이 꿈틀거린다. 전장에서 망원경이 필요한 이유는 멀리 보기 위해서이다. 멀리 관측이 먼저 되면 내가 먼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물을 멀리서 볼 줄 알아야 한다.

둘째, 참신한 정보로 사회를 밝게 하자!

요즘 가짜 뉴스가 만연함으로써 개인적인 오해를 넘어 사회 혼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치 경제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 이는 신뢰 붕괴를 초래한다.

셋째, 선진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글이라는 문자를 발명하여 세계 속으로 확장해 가고 있으며 6.26 전쟁 후 폐허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군사력 세계 5위, 첨단 기술 부국, K-팝 부국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 날로 급성장한 반도체, 조선산업, 과학 기술과 방산 산업, IT산업은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이제 서서히 제야의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아쉬움과 새로움이 교차하는 시점에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해야 할 때다. 송구(送舊)와 영신(迎新) 사이에 제야의 종소리 울린다. 곧 한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음력 11월 12일)

48년생 든든한 동반자의 지고 터럭 하자 60년생 속 깊은 우렁각시 주 변을 돌아보자 72년생 고경관경을 깨야 진짜가 보여진다 84년생 치근 치근 운이 밝아진다 96년생 열매나 결하나 시냇가에 올라보자.
49년생 달아오른 열기 애정 표현 해보자 61년생 흑시 하는 조심 돌다리도 두드려라 73년생 더디 가는 속도를 재촉해야 한다 85년생 새상이라는 공부 각오를 다시 하자 97년생 눈물도 시원도 곳곳에 맞서보자.
50년생 손님 맞이 준비 정성으로 해야 한다 62년생 이끼 없는 축하배가 되어 돌아온다 74년생 권위적인 모습 격을 만들어라 86년생 초저녁 관한길 고집을 지켜보자 98년생 늦게 오는 반응 보는 법을 알아보자.
51년생 분위기에 취하면 가난과 미주한다 63년생 흔들리지 않는 인음을 지켜보자 75년생 아래에서 위로 신분 상승 할 수 있다 87년생 근게 했던 약속은 낙서가 되어간다 99년생 모진 시련 지나고 평화가 다시 온다.
52년생 아쉬웠던 부분 넘치도록 채워진다 64년생 무겁게 안고 있던 빚을 갚아 내자 76년생 여의치 않은 상황을 다시 하자 88년생 뒤에서 보는 흉 천라까지 퍼져간다 100년생 하고자 하는 의지 잠수로 매겨진다.
53년생 줄다리기 하던 거래 도장이 적혀진다 65년생 시렁이 먼저 오는 재인을 돌아보자 77년생 평범한 가운데 즐거움을 찾아라 89년생 남과 다르다. 차별화를 가져보자 91년생 어깨 으쓱해지는 축하를 받아보자.
54년생 말로 하는 실수 책임을 크게 한다 66년생 흥이 넘치는 자리 만나게 돌아보자 78년생 주고받는 도움 어깨동무 해보자 90년생 근거 없는 허세 여지없이 틀러진다 102년생 아름다운 만남, 청춘꽃이 피어진다.
55년생 내 나라 이야기, 한 귀로 흘려내자 67년생 일 욕심이 과하면 낭패를 불러낸다 79년생 관해하는 감동 눈물까지 보여준다 91년생 최고라는 칭찬 당연히 받아보자 103년생 초라할 수 있어도 쉬워 보이지 마라.
56년생 허물이 깨지는 재미에 빠져보자 68년생 급해지는 마음의 심표를 적어보자 80년생 눈물샘 터져 나는 감동이 밀려온다 92년생 강했던 반대응원으로 돌아온다 04년생 맛있는 승리로 존재감을 배워보자.
57년생 어려운 조건에도 포기하는 굴음이다 69년생 새로운 세상에 첫걸음을 걸어보자 81년생 격랑이 뭉치고 적당히 피해 가자 93년생 대담 없는 애리 보디리를 써보자 05년생 머릿속에 생각을 밖으로 꺼내보자.
58년생 나날 때가 아니면 조용히 지켜보자 70년생 자존심은 별개 현실과 타협하자 82년생 발끝으로 조용히 목표를 향해가자 94년생 대충이 없는 진심만을 보여보자 106년생 여럿 중에 으뜸 화려함이 더해진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